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박선미 의원)

의안 번호	2815
----------	------

발의연월일 : 2023. 12. 15.

발의자 : 박선미, 박진희, 금광연,
임희도, 오지연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하남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게 된다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개발도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5대 생활권, 4대 경제 축으로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특히, 하남과 인접한 강동은 도시 성장동력인 고덕 벨리, 강동 ICT 첨단 단지로 동남권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남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하남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경제개발 축이 이어져 일류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나. 하남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서울시 용도지역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계획, 재개발 재건축 계획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서울시가 수립을 하게 된다. 특히, 서울특별시만의 정책인 신통기획이 도입되

면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한층 앞당겨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다. 서울특별시 확장의 문이 열렸고, 하남시가 우선 대상으로 편입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며,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야 한다.

라. 이에 하남시의회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의원은 정부가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주실 것 요구하며, 서울편입에 있어서 편입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구하며,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를 결의하고자 한다.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한민국 국회, 서울특별시장, 하남시장

4. 결의안(건의안) : 붙임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문

하남시는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은 지금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하남시는 과거 1989년 하남시로 시 승격되기 전 경기도 광주시였다. 34년이 지난 지금 하남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1989년 10만 인구는 어느새 33만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하남시는 과도한 그린벨트와 중첩규제로 잠재된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하다 보니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불균형과 그린벨트 내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일몰제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미집행시설도 문제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도 난제이다.

하남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게 된다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개발도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5대 생활권, 4대 경제 축으로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특히, 하남과 인접한 강동은 도시 성장동력인 고덕 벨리, 강동 ICT 첨단 단지로 동남권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남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하남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

해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경제개발 축이
이어져 일류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 서울특별시만의 특별한 권한이 존재하고 그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계획’ 권한이다. 서울 도시계획을 보면 주
거, 도시, 교통, 산업, 환경, 공원, 경관 등 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이 종합적으로 계획된다. 하남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서울
시 용도지역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계획, 재개발 재건축 계획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서울시가 수립을 하게 된다. 특히, 서울특별시만의
정책인 신통기획이 도입되면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한층 앞당겨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하남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하남시는 이미 서울 생활권이다. 서울로 통학, 통근하는 시민의 비율이 어
느 도시보다 높다. 미사, 감일, 초이, 감북, 감일, 위례는 길 하나 건너면 서
울이다. 지금, 하남시는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 변화가 지금만 나온 게 아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다. 조선시대 이래 크
게 세차례 서울시의 도시 확장이 있었고, 2000년에 이르러 오늘의 서울특
별시가 완성되었다. 23년 만에 서울특별시 확장의 문이 열렸고, 하남시가
우선 대상으로 편입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

을 보존하며,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서울특별
시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에 하남시의회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의원은 정부
가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주실 것
요구하며, 서울편입에 있어서 편입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법을 발의하여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을 조속
히 시행하라.

2023년 12월 15일

하 남 시 의 회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의원